

중소지역 무역업체의 수출 애로요인과 수출활성화 전략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A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the Local Small and Medium
Size International Trading Firms
-In Case of Gangwondo Province-

박형래* · 박영기**

목 차

- | | |
|--------------------------------|------------------|
| I. 서론 | |
| II. 강원도의 무역구조 분석 | IV. 강원지역 수출증대 방안 |
| III. 강원지역의 무역증대 기회와 제약요인
분석 | IV. 결론 |

Key Words: export bottleneck, trade promotion, gangwondo province

Abstract

Kangwon Province has grown regional economy under the circumstances of poor resources compared with others and Kangwon Province is in a position to stress trade to continue economic development in futur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at we must analyze the real situation and the potential factors of foreign trade in Kangwon Province. And also this paper is to propose a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foreign trade in Kangwon Province

*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parkhr@kangnung.ac.kr, (033)640-2194, 제1저자

**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강사, tradeap@kangnung.ac.kr, (033)643-1421, 공동저자

I. 서론

지난날의 고도성장을 되돌아 볼 때 투자자본의 제약성과 함께 불균형 성장전략이 불가피하였던 만큼 지역경제발전은 주요 거점개발 중심이었고, 단위지방별 개발의지나 잠재력 평가에 의한 개발방식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지방경제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자치에 의한 자율적 개발은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지방의 제약조건이 무역환경의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과 함께 무역관련 업무나 지원도 수도권의 대형무역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지방 중소무역업체들은 대외경쟁력 면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경제적 자율성과 산업간 균형 확보 그리고 대외무역마찰의 해소라는 명분 때문에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자립기반을 구축한 선발대형 수출업체들과 달리 이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보호 육성되어야 할 형편에 있는 후발 강원도 무역업체들은 수출 증대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강원 지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지방기업차원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대규모투자지원에 대한 측면에서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임재열·하상호·손병암(1993)¹⁾, 임재열(1996)²⁾의 연구에서는 주로 개별기업차원의 수출전략과 중앙정부차원의 낙후된 지역으로의 투자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고종태(1998)³⁾는 지역농수산물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조사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강빈(1999)은 주로 지역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증대방안을 제시하였고⁴⁾, 또한 이강빈(2001)⁵⁾은 지역산품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을 제시하였다. 한편 권양욱(2001)⁶⁾, 최승업(2002)⁷⁾의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무역증대 방안을 제

- 1) 임재열·하상호·손병암, “강원도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산업과 경제』, 1993. 6.
- 2) 임재열, “강원지역의 수출산업화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 『경영과학연구』 20, 1996. 12.
- 3) 고종태, “지역 농수산물가공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시장조사 연구”, 강원대, 『산업과 경제』, 1998. 12.
- 4)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강원지역 중소무역업체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 채산성악화, 무역금융 활용의 어려움, 환율변동,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물류시설의 부족 등을 애로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이강빈, “IMF시대 지방 중소무역업체의 수출확대방안”, 『무역학회지』 제24권 3호, 1999. 12.)
- 5) 이강빈, “인터넷무역을 이용한 지역산품 수출 활성화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1호, 2001. 2.
- 6) 권양욱, “강원지역 무역의 특징과 대응방안”, 상지영서대학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 제9집, 2001. 12.
- 7) 최승업, “도 통상무역 증대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02-07』, 2002.

시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은 물론 기존의 제조업체들마저도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한 후 각 지자체별로도 지역내 기업의 무역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또한 통상관련 조직을 정비·보완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도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통상무역 증대를 위한 거도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무역인프라의 확대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책, 무역 관련 기관의 상호연계 지원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무역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대규모지원과 개별기업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무역관리 및 지원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원지역 무역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기업의 요인과 아울러 지자체의 수출활성화 역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총생산은 우리나라 전체의 2.8%를 차지하면서 수출비중은 0.27%인 6억8천8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⁸⁾ 강원지역의 수출실적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대형수출업체 중심의 무역정책과 지형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강원도의 경제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강원지역으로의 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 산업이 수출주도성장의 한 축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현재의 수출관련 산업이 낙후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강원도의 수출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의 여러 경제여건 변화는 강원도에 새로운 수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하고자 하는 의지 여하에 따라 강원도의 수출증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강원도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역업체 및 무역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강원도의 무역구조 분석

1. 강원지역 수출환경의 변화와 수출증대 가능성

8) 2003년 기준.

강원도의 수출증대 가능성과 강원도의 수출환경의 변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수출증대 가능성이 기대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생산력 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전국대비 수출실적이 생산력 비중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수출증대 역력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⁹⁾ 둘째,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완성으로 수도권과 내륙지역간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아울러 역외지역 및 역내지역간의 간선도로망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수도권 및 중남부 대도시권 시장의 배후입지, 공급기지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넷 무역환경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보의 공유, 통신 등과 같은 애로요인이 극복되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용이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지역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로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 하에 있는 강원지역의 무역기회가 한층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대북 접경지역으로서의 개발제한지역이 북한과의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개발 제한요인이 크게 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강원지역의 발전을 제한하였던 여러 가지 경제환경의 개선은 강원지역의 기업 특히, 성장잠재력을 급속하게 가시화 시키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도시 유치¹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¹¹⁾, 영서세관 유치¹²⁾ 등으로 강원지역에서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수출활동도 이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잠재력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우선 내부적으로는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정비하고, 기존의 무역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속에서 수출기업의 중점시책을 지속적으로

-
- 9)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강원도의 총생산은 20.6조원으로 전국 총생산 731.6조원 대비 2.8%의 생산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688백만달러로 전국 253,844백만달러 대비 0.27%로 나타났다.
 - 10)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이른바 기업도시로 강원도 원주시가 첨단의료산업단지과 연구소 등을 계획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었다.
 - 11) 강원도는 산업자원부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를 동해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산업자원부 산하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 12) 강원도 무역업체 중 수출기업의 70% 이상이 강원 영서지역에 소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의 세관은 유일하게 동해지역 1곳에만 있어 춘천권 무역업체는 서울 본부세관, 원주권 무역업체는 성남세관에서 통관업무를 보는 등 영서지역 수출업체의 통관업무 편의와 강원 무역의 경쟁력강화 및 관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 영서지역에 별도의 세관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출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기업인들이 수출하고자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와 의지를 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유망수출기업들이 강원도로 유입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들을 제공하는 일련의 정책과제를 통하여 강원도 수출증대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2. 강원도의 경제력과 무역규모

강원지역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 면적의 비중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의 수출실적은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대비 강원도의 수출실적은 0.27%로 그나마 열악한 제조업 전국비중 1.06% 대비 5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1> 전국대비 강원도 경제력의 비중(2004년)

	면적(km ²)	인구(천명)	총생산(조원)	제조업(조원)	수출(백만\$)
전 국(A)	99,765	48,082	731.6	169.9	253,844
강 원 도(B)	16,873	1,528	20.6	1.8	688
B/A	16.9%	3.2%	2.8%	1.06%	0.27%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과 강원도청(<http://www.provin.gangwon.kr>) 통계자료를 기초로 재정리¹³⁾

<표 2> 전국대비 강원도 무역의 추이

(단위: 백만\$)

구분	1990	1995	2000	2004	
수출	한국	65,016	125,058	172,268	253,844
	강원도	130	267	332	688
	구성비	0.20	0.21	0.19	0.27
수입	한국	69,844	135,119	160,481	224,462
	강원도	148	402	337	586
	구성비	0.21	0.30	0.21	0.26
수지	한국	-4,828	-10,061	11,786	29,382
	강원도	-18	-135	-5	102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재정리.

13) 총생산 및 제조업은 2003년 기준.

3. 강원도의 수출무역구조

(1) 강원도의 산업별 수출무역구조

강원도의 수출은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처음으로 5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¹⁴⁾ 이러한 강원도 수출을 산업별로 그 구조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수출액 중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산물의 수출비중이 현저히 낮아 진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강원도의 공산품 수출비중은 75.9%로 한국의 평균치인 97.3%에 비하여 낮으나 급속히 상승하여 왔다. 이는 강원도의 품목별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990년 32.3%에서 2004년 68.7%로 급속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의 주종 수출산업이 가공 수산물 등 1차 상품에서 의류기기, 자동차부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표 3> 강원도의 산업별 수출무역구조

(단위: 백만\$, %)

구분	한국				강원도			
	1990		2004		1990		200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수출	65,016	100.0	253,844	100.0	130	100.0	978	100.0
1차상품	3,288	5.1	6,884	2.7	65	50.0	236	24.1
(농산물)	872	1.3	1,758	0.7	7	5.4	84	8.6
(수산물)	1,515	2.3	1,280	0.5	52	40.0	31	3.1
(기타)	901	1.4	3,846	1.5	6	4.6	121	12.4
공산품	61,728	94.9	246,959	97.3	65	50.0	742	75.9
(경공업)	25,033	38.5	25,572	10.1	23	17.7	70	7.2
(중화학)	36,695	56.4	221,387	87.2	42	32.3	672	68.7

자료 : 통계청 및 강원도청 강원수출통계 자료 재정리.¹⁵⁾

14) 강원도의 수출증가율은 2003년 대비하여 38.4%로 성장세만 비교해 볼 때 충북(64.5%), 충남(52.8%), 전북(51.8%), 대전(41%), 전남(40.2%)에 이은 증가율을 보였다.

15) 강원도 총수출 중 Local 289,824천달러 포함.

(2) 강원도의 지역별 수출무역구조

강원도의 수출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시아의 비중은 1990년 62.3%에서 2004년 40.7%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수출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강원도의 수출주력상품이 1차 상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북미지역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대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로 아시아의 비중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 강원도의 지역별 수출무역구조

(단위: 백만달러, %)

구분	한국				강원도			
	1990		2004		1990		200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수출	65,016	100.0	253,844	100.0	130	100.0	688	100.0
아시아	24,658	37.9	129,525	51.0	81	62.3	280	40.7
(일본)	12,638	19.4	21,701	8.5	62	47.7	162	23.5
(중국)	585	0.9	49,763	19.6	0	0	66	9.6
북미	21,090	32.4	46,232	18.2	25	19.2	239	34.8
유럽	12,001	18.5	44,593	17.6	21	16.2	88	12.8
중동	2,619	4.0	11,006	4.3	1	0.8	47	6.8
대양주	1,214	1.9	4,924	1.9	1	0.8	7	1.0
중남미	2,102	3.2	11,562	4.6	2	1.5	25	3.6
아프리카	892	1.4	5,633	2.2	0	0.0	2	0.3
기타	457	0.7	369	0.2	0	0.0	0	0.0

자료 : 통계청 및 강원도청 강원수출통계 자료 재정리.¹⁶⁾

(3) 강원도 무역업체의 현황

강원도의 무역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수에 있어서나 수출실적에 있어서나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말 기준으로 볼 때 강원도의 무역업체수는 559개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업체수의 96,973개의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무역업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454개 업체로 전체 무역업체의 81.2%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원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출실적을 보이고

16) 강원도 총수출 중 Local 289,824천달러 제외.

있는 것은 강원도의 공업화가 지연됨으로써 제조업 생산기반이 낙후되어 있고 도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출참여도가 저조한데다 수출 가능한 품목이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근 들어 무역업계의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비중에 있어서 강원도의 무역업체수가 최저 수준이긴 하나 최근 들어 강원도 무역업체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말 현재 559개 업체로 1999년에 비하여 114개 업체가 순수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무역업이 자유화 되는데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북방항로의 개설로 강원도에 무역업 창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5> 강원도 무역업체 현황

	전체	강원도 무역업체수									
		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횡성	동해	홍천	삼척	기타
1999	83,358	445	102	99	71	23	29	25	23	11	62
2004	96,973	559	118	128	66	46	25	52	20	15	89
증감	13,615	114	16	29	-5	23	-4	27	3	4	27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내부자료 및 강원도청 강원수출통계 자료 재정리.

현재 강원도내 지역별 무역업체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 16개, 원주 29개 등 도시 지역에 많이 증가하였으나 속초 23개, 동해 27개, 삼척 4개 등 동해안 지역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강원도 수출무역구조의 평가

강원도의 수출을 주도하는 주종 수출품목은 1차산품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으나 이들 5대 수출품목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점차 상승추세에 있어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1990년 43.6%에서 2004년 60.3%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강원도의 5대 수출 품목

(단위:천달러, %)

	1990			2004		
	품목	금액	구성비	품목	금액	구성비
	총수출	130,302	100.0	총수출	688,575	100.0
1	조미오징어	23,907	18.3	의료기기	133,719	19.4
2	자동차부품	11,906	9.1	시멘트	111,188	16.2
3	해서동물	9,146	7.6	자동차부품	66,889	9.7
4	수산통조림	7,757	6.0	주류	59,971	8.7
5	라면	4,162	3.2	합금철	43,495	6.3
	소 계	56,878	43.6	소계	415,262	60.3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내부자료.

상기의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의 5대 수출품목이 조미오징어, 자동차부품, 해서동물, 수산통조림, 라면에서 2004년에는 의료기기, 시멘트, 자동차부품, 주류, 합금철 등으로 5대 수출품목의 변화와 함께 이들 5대 수출품목의 수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품목의 수출부진이 강원도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지원하는 수출품목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는 다양한 업체가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한 업체에 의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의 상당부분이 몇몇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의 수출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원도의 수출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¹⁷⁾

4. 강원도의 수입무역구조

(1) 강원도의 용도별 수입무역구조

강원도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원자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원자재(50%)와 자본재(30.7%)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소비재 비중이 19.3%로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생산활동에 적게 투입됨으로써 수출과 내수의 생산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 강원도 총 수출중 상위 5대 업체가 점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강원도의 용도별 수입구조

(단위: 백만\$, %)

구분	한국				강원도			
	1990		2004		1990		200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수입	69,844	100.0	224,462	100.0	148.25	100.0	586	100.0
원자재	37,646	53.9	117,723	52.5	47.95	32.3	293	50.0
자본재	25,477	36.5	81,134	36.1	58.64	39.6	180	30.7
소비재	6,721	9.6	25,603	11.4	41.66	28.1	113	19.3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내부자료.

(2) 강원도의 지역별 수입무역구조

강원도의 지역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북미지역, 2004년에는 아시아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원도의 지역별 수입현황을 살펴 볼 때 최근 북미지역으로부터 수입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럽지역의 수입 증가 추세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비중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¹⁸⁾

<표 8> 강원도의 지역별 수입무역구조

(단위: 백만\$, %)

구분	한국				강원도			
	1990		2004		1990		200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수입	69,843	100.0	224,462	100.0	148	100.0	586	100.0
아시아	28,514	40.8	111,246	49.6	44	29.7	257	43.9
북미	18,407	26.4	30,971	13.8	58	39.2	118	20.1
유럽	10,501	36.8	30,535	13.6	35	23.6	149	25.4
중동	6,187	8.9	33,665	15.0	0	0.0	2	0.4
기타	6,234	8.9	18,045	8.0	11	7.4	60	10.2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내부자료.

18) 유럽지역의 증가추세는 러시아산 대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 러시아산 대계의 수입이 급증하여 전국 수입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증가는 특히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에 의해 농·수산물 중심의 수입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5. 강원지역 무역업체의 수출활동 애로요인과 문제점

강원도 무역업체가 겪고 있는 주요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입지적인 측면에서 오는 제약요인을 들 수 있다.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열악한 지역간 및 지역내 도로망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로 인하여 물류비 비용부담이 증가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강원도 수출기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째, 자금조달의 제약과 담보대출관행으로 인하여 자금조달 곤란하다는 점이다. 높은 기업위험과 채산성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에의 자금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출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¹⁹⁾

넷째, 수출업무를 담당할 고급 인력확보에 제약이 따라 어려움이 존재한다. 영세성으로 인하여 대졸 전문인력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현상유지에 급급한 영세 경영실태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강원지역 상위 5대 수출업체가 강원도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기업에 편중된 수출의존도로 인하여 수출저변 확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수산업, 시멘트 등 전통적 수출우위 분야의 경쟁력 저하 등이 강원지역 무역업체의 수출활동에 있어 애로요인과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²⁰⁾

III. 강원지역의 무역증대 기회와 제약요인분석

1. 강원지역 무역활동의 기회와 제약요인

강원지역 수출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수출업체의 제약요인을 기술적으로 극복하여 수출기업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강원도의 수출관련기관 및 수출기업들은 자

19) The World Bank(1998),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Unit", Private Sector Development Department, R298/SMED.

20) 이강빈(1999)의 연구에서는 강원지역 중소기업 수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외마케팅 활동시 해외시장과 바이어에 대한 정보부족을 수출관련 주요 애로사항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강빈, "IMF시대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방안", 『무역학회지』 제24권 3호, 1999. 12, p. 16.) 한편 정부의 무역진흥확대회의(2005. 9. 26)에서 지방수출기업은 언어·무역실무·외환 등 수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미비하고, 기술 및 품질 지원기관이 부족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하청구조로 인해 고유브랜드의 수출장애가 생기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 바이어 및 정보부족,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 능력 미흡 등의 애로사항이 제시된 바 있다.

신들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더욱 살리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수출증대정책의 관건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강원도 수출기업이 처한 기회·제약요인과 강점·약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강원도 수출기업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의 평가

기회요인(Opportunity)	제약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환경에 의한 정보공유 능력향상으로 대외접근성 개선 ●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 (영동·중앙고속도로완성) ● 동북아지역간의 교류활성화 ● 청정환경 산업입지의 가치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 ● 내부교통연계체계의 미흡 ●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 ● WTO 출범으로 인한 1차산품 수입증대, 교역자유화의 위협 ● 산업인프라부족의 대외 이미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 근접한 지역으로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 수도권과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휴양입지조건 ● 북방교류 위한 지정학적 입지 ● 청정환경하의 산업입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산업인력수용 기반의 미흡 ● 과도한 물류비용의 부담 ● 산업기반의 취약성 ● 전통기반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광공업, 석회석, 농산물) ●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의 만연

2. 기회와 제약요인에 대한 강점·약점별 정책 대안

강원도의 기회·제약요인, 강점·약점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각각의 환경하에서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을 ① 기회요인·강점(Opportunity-Strength)하의 대안, ② 제약요인·강점(Threat-Strength)하의 대안, ③ 위협요인·강점(Threat-Strength) 하의 대안, ④ 위협요인·약점(Threat-Weakness)하의 대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21) SWOT분석은 내부 및 외부 요인을 고려한 경영전략기법으로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1980), "Competitive Strategy :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New York : The Free Press)가 제시한 경쟁분석의 틀을 이용해서 강원도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았다.

<표 10>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에 따른 강원도의 정책대안

기회요인-강점 정책대안	제약요인-강점 정책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EDI 수출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무역안내 강화 ● 유망수출기업의 도내 유치활동 강화 ● 동북아지역간의 교류 활성화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의 수출화유도정책) ● 토지관련 규제완화정책 통한 토지활용도 제고 ● 수출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기회요인-약점 정책대안	제약요인-약점 정책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환경하 정주공간으로서 장점홍보, 대학교급인력활용 ● 물류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구축지원 ● 청정환경하의 산업입지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산업의 재정비 (전략적 지원산업의 조정) ● 수출기업의 마인드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 제고 ● 내부적 노력으로도 기업 능력 배가시킬 수 있다는 의식제고

IV. 강원지역 수출증대 방안

1. 강원지역 무역증대를 위한 기본 방향

기회와 위협요인에 의해 제시된 정책적 틀을 기존업체에 대한 시책과 도내 유치해야 할 업체로 구분하여 이를 단기 및 장기에 걸쳐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아래의 <표 11>은 강원지역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크게 기존업체와 도내로 유치해야 할 업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표 11> 강원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구분	기존업체	도내유치업체
	기존의 (무역)제조업체를 통한 지속적 수출증대 정책	유망수출기업의 도내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수출증대 정책
단기 실행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수출마인드 제고, 지원체제구축 ◎ 기존 무역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수출활성화 ◎ 수출유망산업의 발굴 (농수산물 수출산업화) ◎ 지역무역업체 수출마인드 확산 ◎ 해외시장개척, 홍보강화 ◎ 전통적 비교우위분야 수출능력 재점검 ◎ 산학연 연계체제 강화, 대학의 무역 창업 Incubator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과 같은 지방세의 감면정책 ◎ 수출업체 토지관련 규제완화, 토지활용도 제고 ◎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불필요 규제철폐, 강원도 기업입지 조건제고
장기 검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업체의 수출기반 조성 ◎ 기술개발에 의한 상품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 무상 임대, 저렴한 공장 부지 안정적 공급

2. 강원지역의 무역관련기관의 상호 연계가능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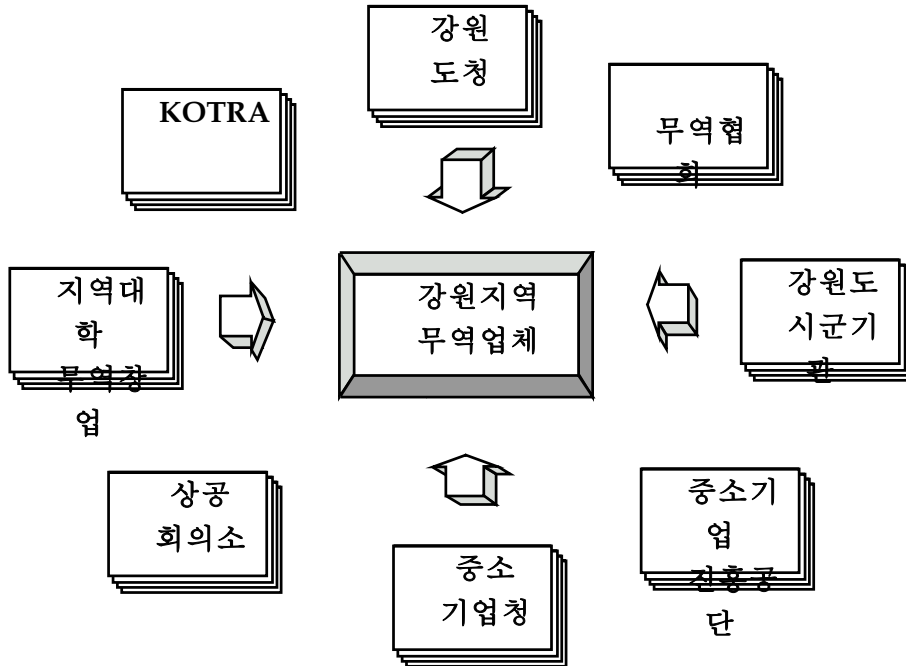
강원도의 경우 무역관련 행정에 관한 한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 업무에 관한 재량권만을 가지고 있고 타부서와의 업무협조에 있어서도 무역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현실에서 상호간의 협의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수출지원기관간의 업무연계를 보다 분명히 하여 미시적 기업자문 역할은 무역전문기관으로 하고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거시적 역할은 지자체에서 담당하여 업무의 중복성이 최소화되어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정부 및 민간단체는 수출 및 내수 등과 같은 일반적 기업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여 수출지원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출지원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²²⁾

또한 대학내 무역 인큐베이터(Trade Incubator)의 설치로 무역실무인력의 공급이 획

22) The World Bank(1995), "Small and medium industrial enterprise project", R298/R15205.

진 원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고속전산망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바이어 발굴에서 계약전 단계까지의 일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산·학 연계 수출지원체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강원도내 수출지원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3. 강원지역 무역업체 및 무역관련기관 및 대학에 요구되는 역할

(1) 도내 신규업체 및 기존무역업체의 역할

도내 무역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유관기관의 다양한 무역진흥 시책과 연계하여 수출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우위에 입각한 제품개발과 생산만이 유일한 수출의 돌파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도내 신규업체 및 기존 무역업체에 요구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 활용을 통하여 쉽게 무역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의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사는 강원도에 두되 제조 및 가공업체는 동일 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컨테이너 수송수단이 아니더라도 트럭으로 운송 가능한 물량의 지

속적 확보를 통하여 물류비 부담이 높지 않은 분야로의 사업확장이 요구된다. 나아가 과수, 화훼, 김치, 장류 등과 같은 농수산물의 수출기업 발굴 및 지원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역할은 장기적으로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2) 무역관련기관의 수출지원체제 강화 역할

강원도내 무역유관기관으로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민간 및 국영 무역지원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오랜 기간동안 무역업체의 수출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시책이나 제도적 지원정책으로 가시화 되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기관들이다. 강원도내 수출업체들은 이들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프로그램과 향후 강원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정보 및 수출의지를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²³⁾

본사 차원의 다양한 무역시책 프로그램을 강원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조화시키고 또한 업체 애로사항 시정조치를 정부부처에 건의, 무역창업분위기의 확산, 무역상담, 무역인력의 양성지원, 수출인프라 구축방안 제안, 통상사절단 파견, 현지 바이어 소개, 도내 생산업체와의 정기교류, 경제무역 정보의 공유, 수출유망산업 안내 및 관련 박람회 견학 및 유치 등 기존의 추진중인 무역관련 시책들을 지속적인 홍보와 인내를 가지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대학의 역할

인터넷 무역환경 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 협동 체제 형성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가능 품목의 리스트 작성 후 수출마케팅을 직접 실시하여 수입가능 한 거래처를 발굴하게 한다.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통신은 대학 내 무역팀이 구성이 되어 거래 알선,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며 업체와 함께 무역실무를 병행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지역 대학내 Trade Incubator의 적극적인 운용 및 활용을 통한 수출 알선활동, 대학 내 무역창업 인규베이터의 설치 운용을 통하여 수출알선 활동, 인터넷을 통한 수출 홍보 등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23) 특히 중소기업업체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역정보와 홈페이지 및 전자카다로그의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4. 강원지역 무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기본여건 조성으로서 토지규제의 완화

강원도의 경우 전체 토지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용한 토지면적이 적은 실정이다.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인위적인 규제가 많아 여타 지역에 비하여 토지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지역인들의 자구적인 개발의지를 억제하고 있으며, 기업입지상의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주도하에 불필요한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토지공급을 늘리고 기업 입지상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무역활성화의 주체로서 역할

1)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정부차원의 지역경제 인프라 육성 지원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일정한 단계까지 상승하거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당분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인 경제발전정책, 전략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지역의 효율적인 물류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이 연계된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은 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우선 나서서 기반을 조성해야 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대형투자결정을 통한 강원지역의 인프라 수준 향상은 그 필요성을 효율성의 논리보다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의 주장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하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 논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 많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차원에서 무역활성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내 소규모일지라도 무역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당장 어렵다면 일정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역 활성화 추진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조직의 신설이나 지정은 향후 활성화될 수 있는 지방자치체와 민간, 정부 무역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이나 관련 자료의 축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 조직이 순환보직 문제로 전문가 양성이 쉬운 것은 아니나 최소한 과단

위 전담 부서와 과원 중 1명의 전담요원이 정해져 있어야 관련 자료가 축적이 되고 무역활성화 업무 기획과 개발이 가능해 진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실무자 중심으로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무역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무역활성화 사업은 타 기관이 볼 때 실현성이 있고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 인식될 때 추진 주체간 상호신뢰 및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²⁴⁾

3) 낙후된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추진

지자체는 강원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무역활성화 사업이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가 없을 수 있다는 염려로 무역활성화에 대한 투자나 관심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열악한 기업환경에서의 무역증대에 대한 투자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업체와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무역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업계의 무역증대노력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어렵더라도 결과에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보다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역종사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실망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역활성화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4)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강원도 무역활성화는 최소한 도내 생산력 수준에 맞게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도내 무역업체가 IMF이후 협소한 내수시장의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역활성화를 통해 강원도의 생산력이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한 단계 발전하고 도내 기업의 무역확대가 강원도 발전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원도민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역활성화 정책의 지름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도가 무역활성화정책의 주체가 된다면 무역확대는 강원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생산력의 원천이라는 점,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유무형의 지원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무역정책의 성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24) 단기적 무역활성화 성과에 급급하여 당장의 가시적 결과에 급급하기보다는 무역활성화 사업을 지자체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자체예산으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뒤 예산을 확보하여 대형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할 것이다.

(3) 지방정부로서 지도·지원 역할

1) 기존무역기관의 무역정책 틀 내에서 조화되는 정책시행

도내 기업의 무역활성화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은 기존의 무역유관 전문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무역증대 시책에 입각하여 무역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도내의 기업의 무역활성화에 애로요인과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기존의 무역전문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도내 거시적인 무역정책의 틀, 예를 들면 무역질서 확립·지도와 도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기금지원,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등과 같은 무역활성화 여건 조성 등의 방향은 지방정부가 설정하되 기업관련 미시적 시책과 실무대안들은 무역전문기관의 정책 틀에서 조화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²⁵⁾

아직 강원도내의 무역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고, 지방기업들의 무역활동이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큰 역할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 무역증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고 강원도 내 무역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무역관련 경제활동과 업무가 대폭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소극적인 지방정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무역활성화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없을 것이며 무역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조화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무역관련 정보의 제공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무적 차원의 정보와 아울러 강원도 전체의 지역개발정책, 창업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 규제 법률에 관한 정보, 강원도의 지역별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정보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부 관련 부서가 제공하는 각종 법률, 창업안내에 관한 실무책자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강원도 차원의 무역관련 창업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절차의 안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자원부에서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무역관련 설명회를 가끔 개최하지만 그 대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차원에서 전담 부서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련자료 등을 구비하여 정보제공 및

25)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관련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도 운영의 묘를 살려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역업계 및 관련 무역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강원지역 무역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 강원도의 수출실적은 대단히 미약하지만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인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무역은 급신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강원도에 내재하는 수출잠재력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우선 무역업체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의 확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우위에 바탕을 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외부적으로 도로를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수출환경의 정비 등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유망수출기업이 유입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원도의 수출은 지역 기업인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우선되고, 그 후 정책적인 지원이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강원도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에 적합한 지식기반 신산업육성 방안", 『연구보고 99-05』, 1999.
2. _____,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연구", 『연구보고 99-06』, 1999.
3. 강원일보, '강원무역 돌파구를 찾자', 2004. 12. 22 - 24.
4. 고종태, "지역 농수산물가공식품 수출촉진에 관한 시장조사 연구", 강원대, 『산업과경제』, 1998. 12.
5. 권양옥, "강원지역 무역의 특징과 대응방안", 상지영서대학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 제9집, 2001. 12.
6. 대한상공회의소, "지방무역환경실태와 활성화 방안", 89-35, 9-22, 1989. 12.
7. 박치영, "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 『무역논집』 1, 1987.
8. 산업연구원, "강원지역 지식기반 산업 발전방향", 1998. 12.
9. 산업자원부, "대외무역환경변화와 정책과제", 1998. 8.
10. 이강빈, "IMF시대 지방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방안", 『무역학회지』 제24권 3호, 1999. 12.
11. _____, "인터넷무역을 이용한 지역산품 수출 활성화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1호,

2001. 2.
12. 임재열 외, “강원도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산업과 경제』, 1993. 6.
 13. 임재열, “강원지역의 수출산업화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 『경영과학연구』 20, 1996. 12.
 14. 장은하 외, “강원지역 수출백합 생산농가의 경영개선 연구”, 『농업과학논문』 38, 1996. 12.
 15. 중소기업진흥공단, “2000년도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보고”, 2000. 6.
 16. 최승업, “도 통상무역 증대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02-07』, 2002.
 17.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중국진출 및 대북교역 성공전략”, 2001. 5.
 18. _____, “인터넷 마케팅 및 해외바이어 발굴기법”, 2001. 8.
 20. The World Bank(1995), “Small and medium industrial enterprise project”, R298/R15205.
 21. _____(1998),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Unit”, *Private Sector Development Department*, R298/SMED.
 22. Levicki, Cyril and Croom Helm, "Small business : theory and policy", 1984 HF5341 .S52, 1984.
 22. Barber, J., "Barriers to growth in small firms", *Routledge* 1989 HD2341 .B27 1989.
 23. James, Kenneth, "Small and medium business improvement in the Asean region : marketing factor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8.
 24. Michael E. Porter,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The Free Press*, 1980.
 25. <http://www.kita.net>
 26. <http://www.kotra.or.kr>
 27. <http://www.nso.go.kr>
 28. <http://www.provin.gangwon.kr>